

추가요금 내라·유효기간 지났다

‘왕싸증’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화났다

피해 신고 한해 1천여건...미환불 금액 상반기 42억원

까다로운 환불절차 등 불만 급증...대책 마련 서둘러야

직장인 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내는 친구에게 2만4000원짜리 케이크 기프트콘을 선물 받은 정씨는 매장에 제품을 교환하려 갔다. 하지만 매장직원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2만5000원이라며 추가로 10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제품·가격에 살 수 있는 기프트콘이라도 매장 가격에 맞춰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 것이다.

주부 김모씨도 지난달 한 패밀리레스토랑을 찾아 식사를 마친 뒤 기프트콘으로 계산을 하려다 깜짝 놀랐다. 지인에게 선물받은 패밀리 레스토랑 기프트콘의 유효기간(60일)이 지나 쓸 수가 없게 돼서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식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고객센터로 문의해 봤지만, 이미 연장 가능한 기한도 지나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불품교환 시 차액발생, 환불 절차 및 사용기간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

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구입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는 연평균 2200건에 달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상품권 유형을 보면 총 이상상품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다른 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며 주로 1만~2만원대의 소액인데다 환불절차가 까다로운 소비자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씨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사용하지 못하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42억368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플래닛이 35억원으로 가장 많

으며 KT엠하우스가 7억3000만원, LG유플러스는 680만원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주요 사업자인 이들 3개사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중 미환불액은 195억358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 3693억8000만원의 5.2%에 해당한다. 돌려주지 않은 돈은 모두 회사가 낙전수입으로 챙겼다.

이처럼 상품권 미환불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빚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기준 60일로 제한돼 있던 사용기간을 ‘물품형 상품권’은 최대 4개월(기본 60일+연장 60일)까지, ‘금액형 상품권’은 최대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지난 2월 연장 기한을 재조정해 물품형은 6개월, 금액형은 9개월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팩스로 요구하던 까다로운 환불절차도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공정위 권고나 미래부 개선안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배정 영업을 하고 있다. 권고나 개선안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어서다.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들은 임의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기한을 설정해 받고 있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잔액을 아예 반환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환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며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이라 사용기간 일괄 연장 등 제도 정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정훈 연구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처 별로 이용 조건 및 보상 기준이 달라,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적이고 통합된 상품권 관련 법규 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동칫솔 칫솔모 교체비용

제품별 연간 최대 4배 차이

한국소비자원은 시장 전동칫솔 10종의 연간 칫솔모 교체비용이 제품 간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동칫솔을 사용 중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제품 선호도가 높은 충전식 전동칫솔 5종과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식 전동칫솔 5종 등 8개 업체, 10종의 제품을 선정했다.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칫솔모 교체비용은 연간 4차례 교체 시 8200원(테스코 프르테크 전동칫솔)부터 3만3070원(소니케어 헬시와이트 HX6731)까지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일부 충전식 제품은 충전지를 교환하려면 본체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A/S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케어 헬시와이트(HX6731)와 파나소닉(EW-DL82)은 모 끝 다듬질 품질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소음은 ‘암앤햄머 스피너브러쉬’(프로와이트 EX SOFT)와 ‘오랄비’(크로스 액션파워 항공 칫솔) 제품이 각각 61dB과 59dB로 다른 제품에 비해 컸다.

제품의 진동수를 3만1천회로 표시한 제품을 왕복기준으로 측정해 결과 진동수가 약 1만600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강건강에 관심이 커지면서 전동칫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칫솔에 대한 종합적인 상품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겨울용 고가의 다운재킷 잘 고르려면...



엘리밋 파라슈트 다운 재킷.

<엘리밋 제품>

솜털·깃털 비율 8대 2면 ‘우수’

방수·털빠짐 방지 등 걸감원단 체크 필수

겨울철을 앞두고 아웃도어·스포츠용품 업체마다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다운재킷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디자인과 가격만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어떤 기준을 세워 구매하는 것이 현명할까.

◇충전재, 솜털의 비율과 필파워까지 꼼꼼히 살펴야=다운재킷에는 오리나 거위의 가슴 부위 솜털인 ‘다운’과 깃털인 ‘페더’를 충전재로 사용한다. 솜털인 다운은 수많은 털 가지 사이에 공기를 품어 공기층을 형성함으로써 보온성을 향상시켜주고 가볍다. 반면 깃털인 페더는 납작하게 뻗은 형태로 공기 함유량이 솜털에 비해 떨어지며 탄성도 낮아 복원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열전도율이 낮은 공기를 많이 머금게 되며 두터운 공기층을 많이 형성해 내부의 온기를 보존해주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준다.

대개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8대 2 정도면 우수한 제품이다. 솜털이 90%이상인 제품은 가볍고 풍성한 볼륨감과 보온성도 갖추고 있어 최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다운재킷의 태그택이나 손목 부위에 기재돼 있는 필파워 수치도 중요한 포인트다. 필파워 수치는

다운을 24시간동안 풍천 후 압축을 풀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복원력을 의미한다. 필파워가 높을수록 충전재가 많이 부풀어 오르고 그만큼 머금 수 있는 공기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우수하다.

◇방수·발수, 털빠짐 방지, 발열소재 등 걸감원단도 반드시 확인해야 = 다운재킷에 사용되는 원단도 체크해봐야 한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수·발수 기능이 있는 소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걸감이 젖어 다운 충전재가 습기에 노출되면 털 가지가 뭉치면서 보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운재킷의 충전재가 외부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소재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재봉선으로 다운이 새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중으로 박음질이 마감돼 있는 다운 프루프 기술이 적용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보온성 강화를 위해 안감으로 발열 소재를 적용한 제품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반사시켜 다운재킷 내부의 온도를 높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보온성을 위주로 살펴보면 추천할 만하다. /연합뉴스

일부 시판 향수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착향제 성분이 4~15종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에는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들어있으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는 유럽 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복실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 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 참조은인와
● 한길통증의학과
● 신한은행
●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사기 9천 사할 기도원 적합 1억6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중시가 12억7천 문형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5천 투자까지 총 14억
-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내 대지 등 6263㎡(357)건축물 대장있음. 대출 9천만원 매도 1500만원
- 광천동 터미널 인근 7층 건물 대지 661㎡(200)건물 741평 대출 15억 전세 4억선 월 1600선 수익 교환도 가능 매도 23억

투자 매도 교환

- 전원생활 적합 장성 삼계면 편백 나무산 36099㎡(10900)9천만원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쌍촌역 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보통급 3천만원에 월 490만원선 수익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적합 5억2천
- 진월동 호반 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영산포와 영암간 도로점 가드 대지 1053㎡(318) 건물 266㎡(80) 쌍촌동 화장동 상가주택과 교환원할 4억5천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평 97㎡(29)1억3천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 좋은 모델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33 은행 10억 8200 교환도 가능함 1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임대

- 쌍촌동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자리 234㎡(71) PC방, 오락실, 생맥주 타운 등 다양도 보증금 5천에 월 2200이나 타협해서 조정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토지 임대
화정동 대로변에 접한 토지, 모델하우스 및 대형 전시관 최적.

- 지역 : 준주거지역
- 지목 : 대 • 면적 : 3,215㎡
- 임대 : 협의(매매도 가능)

투자 만 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이상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전녹지지역 (도로 점)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주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점. 전원주택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준공업지역
평동공단 1번도로 끝 계획도로 점, 전 및 임야 투자적합

- 지역 : 준공업지역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9,027㎡
- 매가 : 3.3㎡ 29만

지번문의 사절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상가건물 임대 150평

농성동 상록회관 근처
현,약품도매상 성업중

지하 1층 이상 1,2층 (총 150평)

대형주차장 완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

062)367-1254
062)367-125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